

# 在外韓人들의 독립투쟁 실상 규명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의 저자 윤병석교수

우리 근·현대사의 맥을 보다 정확하게 짚어내는 작업은 일제강점기로 인해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의 실상과 그 의의를 더욱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의 선행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병석교수(62·인하대 사학과)가 펴낸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일조각)은 민족독립운동사연구의 한 집적물로 읽힘과 동시에, 나라 밖을 무대로 펼쳐졌던 독립운동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면에서도 그 의미는 다시 한번 뜻깊게 새겨질 만하다. 언론계와 교육계의 선구자로 민족독립운동에도 관여했던 故 韓基岳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돼,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월봉 저작상'에 윤교수의 이 책이 선정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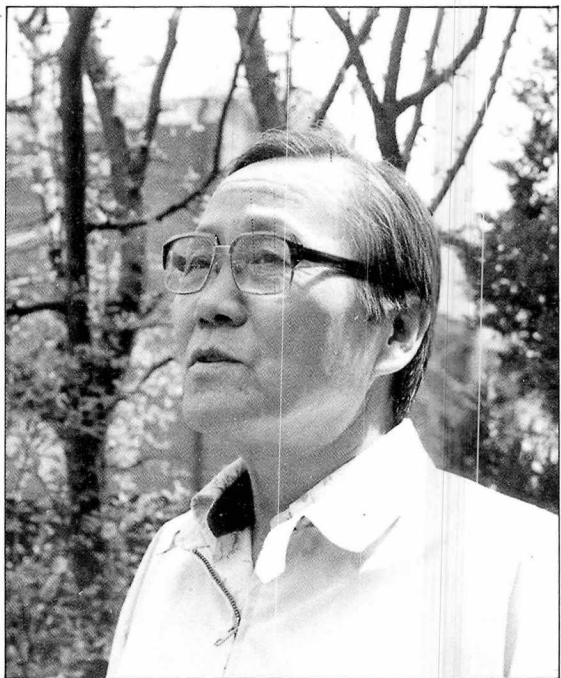
“저술내용이 월봉선생도 관계되었던 국외한인들의 민족독립운동을 포함하고 있을 뿐더러, 연구의 필요성에 비해 별로 논구되지 않았던 서북간도를 비롯한 남북만주와 소련 연해주 지방의 한인사회가 어떤 경위로 성립되었고, 그들의 민족독립운동의 성격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수상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이라는 경제적 이유와 '망국'이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낮은 땅을 밟았으면서도 독립을 위해 목숨마저 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국외한인들에 대한 연구는, 남북분단과 이념대립이라는 난관으로 자료교환이나 현지답사가 어려워 기본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윤교수는, “역사의 기술은 현장답사의 의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과 함께 반쪽의 역사

를 버려둘 수 없다는 의지로 저술에 임했다고 설명한다. 청산리대첩 60주년과 안중근의사의 의거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연변대학이 비공식적으로 마련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제작된 중국을 방문해 유적지 등을 둘러보면서 얼마간의 '안심'을 하기도 했다는 윤교수.

그가 펴낸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은 민족운동사의 골간을 이루는 항일독립운동을 보다 폭넓게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해외한인사회의 성립과 이를 거점으로 한 조국 광복투쟁의 의의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각종 학술지와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10편을 모은 것이다. 우선 지역별로 서북간도와 만주, 연해주, 미주지역으로 연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1860년대 이래로 빈농이주 개척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한 서북간도의 한인사회가 농경지 개간을 통해 터전을 확보하면서 국내항전이 어려워진 1910년대 이후의 독립운동을 懇民會와 한족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또한 제1차세계대전 발발 무렵까지 해외독립운동의 중심지역이었던 간도와 인접한 러시아령 시베리아 지역, 즉 블라디보스톡을 핵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러시아의 극동진출계획과 맞물려 진행되고, 이들 연해주 이민들이 조국에서 쫓겨온 민족운동의 지도급 인사들과 더불어 적극적인 독립운동에 참여했음도 언급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미국이민조약에 의해 하와이를 시발로 형성된 미주지역 한인사회와 남미 멕시코의 한인들이 어떤 경위로 근대적 민족주의를 성장시키면서 '독립전쟁론'의 구현을 위한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느냐 하는

민족운동사의 골간을 이루는 항일독립운동을 보다 폭넓게 규명하기 위한 이 책은 서북간도와 만주, 연해주, 미주지역을 중심한 나라 밖 독립운동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한인사회의 성립과 이를 거점으로 한 조국광복투쟁의 의의를 정립, 민족독립운동사연구를 집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저작이다.



윤병석교수.

것이 이 책의 주된 논점이다.

“국의민족운동은 인적·물적자원의 공급이 국내에서 비롯되었고, 국외운동 그 자체가 국내독립운동의 연장이며 확대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운동의 탄압으로 그 세력이 위축되기도 했다”고 전하는 윤교수는, 이와같은 국외독립운동기지 건설의 방향과 내용은, 첫째로 독립운동가들이 각 지역에서 한인단체를 조직해 자치력을 신장시키면서 투쟁했고, 다음에는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근대민족주의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근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업권장 활동과 함께 선교활동을 통한 민족의식 고조를 도모했다고 평가한다.

농업계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학과에 진학한 이후 단 한번도 학문 이외의 길이라곤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윤교수가, 역사적 사건과 사실, 인물을 재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史學을 해오면서 신념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역사는 절대로 왜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라를 잃고 독립을 위해 싸웠던 선인들의 유적지에 서서 남쪽에 있는 백두산을 바라보던 괴로움을 잊지 못하겠다는 그는, 양심을 속이고 시세에 영합하면서 역사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안된다는 ‘역사 속의 신의’를 다짐했다.

— 최태원 기자

## “아이에게 자연을 선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험도감’은 자연의 길잡이입니다.

자연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어쩌다 야외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당황만 할 뿐.  
자연의 벗 ‘모험도감’이  
이 두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배낭 꾸리는 법, 텐트 치는 법, 지도 읽는 법,  
요리법, 응급 치료법, 야생 동·식물의 세계...  
참교육의 한마당인 자연,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펼쳐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신출판사** 2도 인쇄 / 340쪽 / 값 4,800원  
전화 720-5990 · 1

사또우지 아이 글 / 마쓰오카 다스히데 그림 / 김창원 옮김



**주요내용**

- 걷는다**  
신발을 고른다  
배낭 꾸리기  
지도 읽기
- 먹는다**  
밥짓기  
가져갈 취사도구  
먹을 수 있는 산나물
- 잔다**  
텐트 치는 법  
필요한 조명 도구  
야외 화장실
- 만들며 논다**  
나무그릇 만들기  
눈 오는 날의 놀이  
도구를 손에 익히자
- 동물과 식물을 만나다**  
가까운 곳의 나무 관찰  
동물의 발자국  
독초와 독버섯
- 위험에 대처한다**  
길을 잃었을 때  
머리 배가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약초

1991년 8월 8일 설악산에서 지구촌 보이 스카우트의 대축제인 세계잼버리가 열립니다. 야외생활을 통한 몸과 마음의 단련... 여기에 잼버리를 더욱 신나게 해줄 우리들의 친구 「모험도감」 야외생활길잡이 「모험도감」은 대 자연을 가르쳐주는 친절한 선생님입니다.